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5호, 2007
<연구논문>

J. Kor. Soc. Cloth. Ind.
Vol. 9, No. 5, pp.478-485(2007)

전통의상에 사용된 장식의 배치구도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여성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

정혜경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A Survey on the Disposition of Ornament for the Traditional Costume
- Focus on Women's Jegori and Chima in South and North Korea -

Hye-Gyung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Abstract : This survey is about the disposition of ornament for the traditional women's Jegori and Chima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Disposition of part was used a lot in Jegori and Chima by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existence of ornament, the number and range decorated part and a type of disposition, there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were not many Chimas with ornament in South Korea, which means that South Korea focused on decorating Jegori. The number and range of decorated part in South Korea were many. Disposition type of Jegori ornament in South Korea was various but in North Korea disposition of type of Chima ornament was variou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disposition, South Korea's Jegori tended to follow the traditional disposition. In case of Chima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Jegori in North Korea, the proportion of traditional disposition, altered traditional disposition and modern disposition was little different.

Key words : Disposition, traditional disposition, altered traditional disposition, modern disposition, Jegori, Chima

1. 서 론

오늘날 한복의 장식은 복고주의 경향과 민속풍에 힘입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식의 기법이나 형태, 장식의 배치구도 등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장식이 놓이는 배치 구도는 시각적 효과가 커 한복 디자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전통적인 동양의상에서 나타나는 넓은 평면적 면적은 마치 화폭의 한 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때 화폭의 구도는 미적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내용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강관식, 1997). 예를 들면 색상배치에 의해 장식된 회장저고리는 남편과 자녀를 상징하는 내용적 의미를 지녔지만, 오늘날의 장식배치구도는 이러한 내용적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적 배치에 머무르고 있어 그 표현을 위한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한복이나 한복지 장식에 대한 연구는 문양의 종류와 기법 등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며(권순정·송경자, 1999; 장수경, 1994; 하덕순, 1993), 장식의 배치구도에 관한 연구는 고려 및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주영 외, 2004; 옥명선 외, 2005; 장현주 · 하종경, 2005) 등이 있지만, 오늘날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한복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정혜경 · 박영희, 2004; 최경순 · 김수경, 1999).

현대한복에 사용된 문양이나 장식에 관한 최경순 · 김수경(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한복의 배치구도는 좌우 대칭 문양의 구도, 상하 대칭 문양의 구도, 상하 좌우 대칭 문양의 구도, 비대칭 구도, 원근감 구도로 분류되었는데 이것은 한복지의 문양배치구도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한복의 장식문양에 관한 연구(정혜경 · 박영희, 2004; 정혜경, 2006)에 의하면 장식의 배치는 전통적 배치와 현대적 배치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전체배열과 부위집중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 최근 한복 장식의 배치는 전통적인 배치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위에 장식이 배치되거나 일정한 부위에 장식이 집중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전통한복의 현대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동시에 고찰하여 각각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장식과 현대적인 장식으로 양분화 함으로서 현대적 장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복에 다양하게 사용된 장식의 배치구도를 세분화하여 고찰함으로서 배치구도의 현황을 분석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저고리와

Corresponding author; Hye-Gyung Chung
Tel. +82-55-249-2345, Fax. +82-55-249-2345
E-mail: measo@kyungnam.ac.kr

치마를 함께 착용하였을 때 통합적인 장식 배치구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형태상으로 단순한 기모노는 문양을 통한 미적 효과가 추구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고소데(小袖)는 문양이 배치된 구성에 따라 견거(肩)문양, 편신체(片身替)문양, 상방전개(上方展開)문양 등 다양한 의장으로 분류되어 장식 배치구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이자연, 1999).

이상 본 연구는 전통한복 장식의 배치구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유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저고리, 치마 각각의 장식 배치구도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 여성 한복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오늘날 다양한 장식의 배치구도를 전통적인 장식의 배치구도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최근 출간된 남한과 북한의 여성 한복 관련 잡지이며, 1990년대 중반이후 2000년대 전반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남한의 경우 한복 전문 월간잡지 「아름다운 우리옷」(1995년~1999), 「온고지신」(1999년~2000), 「한복」(2001년~2005)이며, 북한의 경우 「조선민족옷」(1995a), 「조선민족의상」(1995b), 「아름다운 조선옷」(1999), 「옷도안과 설계」(2001), 「옷본보기」(2002a), 「민족옷」(2002b)이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남한의 경우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이며, 북한의 한복전문 잡지는 정기적으로 발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3년도 이후의 자료는 찾을 수 없어 19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로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유행의 변화가 느린 사회로 이 기간 동안의 남북한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자료 중에는 한복 사진을 중복하여 개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유행의 변화가 그만큼 느림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중복된 것을 다수 확인하여 발표된 연도를 찾아 정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남한의 경우 각 연도 별로 2~3권의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북한의 경우는 각 잡지에 수록된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2.2. 자료분석

한복 장식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한복 장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한다. 전통의상은 형태상에 있어서 변화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색채나 문양을 통해 다양한 장식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진민・김민자(2006)는 복식에 나타난 장식성은 동양의 경우 음양오행에 따른 색채와 문양을 운용함으로서 색채와 문양의 상징성이 발달된 반면, 서양의 경우 순수한 시각적・표현적 효과에 따른 운용으로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의 발달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한복에 사용된 장식은 전통성과 상징성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지고 서양의 장식 경향인 표현성에 치중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양 장식기법이 활용되고 있다(정혜경・박영희, 2004). 이러한 동양복식에 나타난 장식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복 장식의 범위를 문양 장식과 배색된 색상 장식을 포함하였다.

문양에 의한 장식은 한복지 자체에 문직된 문양과 한복지 위에 더해진 장식 문양으로 구별된다. 한복지 자체의 장식문양은 주로 여러 가지 색의 견사로 무늬를 넣어 짠 단직물을 포함하였으며, 한복지 위에 부가되는 장식문양에는 자수, 금・은박 등 전통기법 외에 그림, 염색, 비즈, 아플리케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색상배치에 의한 장식으로는 색동이나 회장, 선두르기, 조각보 등의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

한복 장식의 배치구도 : 본 연구에서 고찰하게 되는 장식의 배치구도는 기본적으로 전체배치, 부분배치 그리고 이들의 혼합배치로 나누어졌다.

전체배치는 의복 전체에 장식이 배치된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 충진형, 산점형, 회화형으로 분류되었다. 부분배치는 전통적으로는 깃, 섶, 곁마기, 끝동, 고름, 치마단 등 의복의 구성요소에 장식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의 구성요소-동정, 도련, 섶선, 진동선, 어깨마루, 소매마루, 배래, 치마허리띠, 치마폭 이음선 등- 또는 당의나 활옷 등 다른 전통의상에 쓰이던 장식부위-어깨부위, 뒷고대아래부위 등-에도 사용되어 다양한 배치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분배치는 저고리와 치마의 경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방법을 달리하였다.

저고리의 부분배치는 한 부위만 장식되는 단일형, 두 부위 이상이 장식되는 복합형으로 구분되었다. 복합형은 장식된 부위의 수에 따라 2부위형~6부위형으로 구분되었다. 복합형은 세부적으로 전통 회장 장식과의 관련성이 깊은 것이므로 다시 회장형, 회장에 다른 부위를 추가로 장식한 형, 단순히 여러 부위를 복합하여 장식한 형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치마의 부분배치는 치마하부와 아랫단, 허리띠 등의 수평적인 장식에 의한 수평형, 아래로 드리워진 허리띠 혹은 치마폭의 이음선이나 치마폭의 길이방향으로 장식된 수직형, 치마폭의 사선방향으로 장식된 사선형, 그리고 이들의 복합형으로 구분되었다. 수평형은 상부형, 중부형, 하부형, 이들의 복합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수직형은 수직선(형) 장식이 집중된 형과 분산된 형으로 구분되었고, 사선형은 좌측하부에서 우측상부로 향하는 우측상향형과 좌측상향형으로 구분되었다.

3. 저고리,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

3.1.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

남한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 : 남한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저고리의 장식 배치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분배치(89.3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체배치와

Table 1. 남한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전체배치	산점형		1	1			1				1		1	5(1.1)
부분배치	단일형	깃				1								1(0.2)
		고름					1	2			4	1	2	10(2.3)
		소매			1		2				2	2		7(1.6)
		끝동		1					1	1	2		1	6(1.4)
	복합형	2부위	4	2	3	1	2	6		5	7	4	6	40(9.1)
		3부위	15	22	16	17	17	19	1	13	12	12	21	165(37.6)
		4부위	7	12	5	9	13	11	12	10	12	16	4	111(25.3)
		5부위	2	4	3	2	2	1	20	1	2	3	2	42(9.6)
		6부위		1	2	1			3	1		2		10(2.3)
전체배치+부분배치	전체배치+1부위		1							1	2	1	2	7(1.6)
	전체배치+2부위		5					2						7(1.6)
	전체배치+3부위		2	2		2	1	2		2	1	1	3	16(3.6)
	전체배치+4부위						1		1		1	1		4(0.9)
장식 없음				5	1					1			1	8(1.8)
합계			37	50	31	33	40	43	38	35	46	43	43	439(100)

N(%)

부분배치의 혼합(7.73%), 장식이 없는 경우(1.82%), 전체배치(1.14%)의 순이었다.

장식이 배치된 부위는 주로 저고리 구성요소를 근거로 이루어져 깃, 동정, 고름, 섶, 길, 곁마기, 소매, 끝동으로 분류되었다. 그 외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도련선, 진동선과 배래선 및 소매부리선, 깃선, 섶선 등의 부위가 장식부위로 사용되었지만 이들은 각각 길, 소매, 깃, 섶 부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어깨마루, 소매마루 등의 장식은 각각 길과 소매로 포함시켰다. 그 외 뒷고대 아래부위 장식이 있었지만 사진 자료상으로 뒷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위의 Table 1에서 장식의 배치구도를 보면 전체배치는 단독으로 혹은 부분배치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배치구도의 유형으로는 산점형이 가장 많았으며, 충진형과 회화형은 극소수였다. 전체배치구도는 전통적인 직물문양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그동안 기피된 것으로 보인다.

부분배치는 장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단일형(5.47%)에 비해 복합형(83.84%)이 많았다. 먼저 단독형은 저고리의 구성요소 중 깃, 고름, 소매, 끝동의 4가지 부위만 사용되었는데, 그중 고름부위 장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소매, 끝동, 깃의 순이었다. 한편 이는 깃, 고름, 끝동의 전통회장에 장식되었던 부위가 계속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복합형은 장식부위의 범위에 따라 2~6부위형으로 구분되었는데, 3부위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부위형, 2부위형, 5부위형, 6부위형의 순이었다. 복합형 배치는 전통회장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Table 2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전통회장형, 전통회장형에 다른 부위를 추가한 형, 여러 종류의 단일 부위를 함께 장식한 단순 복합형이 있었다.

Table 2. 남한 저고리 장식의 부분배치 복합형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2부위형	회장형(깃・고름, 깃・끝동, 고름・끝동)	3	2	0	1	1	2	1	3	2		5	20(5.4)
	단순 복합형	1		3		1	4		2	5	4	1	21(5.7)
3부위형	회장형(깃・고름・끝동)	3	6	10	6	3	11	8	10	12	10	12	91(24.7)
	회장+1부위형	11	14	6	11	14	7	4	3		2	9	81(22.0)
	단순 복합형	1	2				1						4(1.1)
4부위형	회장형(깃・고름・끝동・곁마기)		4		1	1	9	7	4	4	5	2	37(10.1)
	회장+1,2부위형	7	8	4	8	12	2	13	6	8	11	2	81(22.0)
	단순 복합형			1									1(0.3)
5부위형	회장+1,2,3부위형	2	4	3	2	2	1	3	1	2	3	2	25(6.8)
6부위형	회장+1,2,3부위형		1	2	1				1		2		7(1.9)
합계		28	41	29	30	34	37	36	30	33	37	33	368(100)

N(%)

2부위형은 회장형 외에 저고리 구성요소 중 2부위-고름·소매, 길·끝동, 고름·끝동 등-를 장식한 단순 복합형이 있었다.

3부위형은 회장형, 회장에 한 부위를 더한 형, 3부위를 장식한 단순 복합형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회장형(깃・고름・끝동)과 회장(깃・고름)에 소매 부위를 더한 깃・고름・소매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부위형은 회장형, 회장에 1~2 부위를 더한 형, 4부위를 장식한 단순 복합형으로 구분되었다. 조사결과 회장형(깃·고름·끝동)에 소매를 더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3부위형에서 많이 보였던 깃・고름・끝동, 깃・고름・소매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회장에 더하여진 부위를 살펴보면 2부위 회장형에 소매와 섶, 소매와 길 등을, 3부위 회장형에 소매 또는 섶 또는 길 등을 더한 것이었다.

5부위형은 모두 회장에 1~3부위를 더한 형으로 7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깃・고름・끝동・소매・길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4부위형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유형에 길 부위가 추가된 것이다. 길의 장식 부위는 상부, 중부, 하부 등 위치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쪽 길에만 장식되는 경향도 늘어났다.

6부위형은 5부위형에서 빈도수가 높았던 유형에 섶이 추가된 것으로 1가지 종류만 보였다.

이상 부분배치의 복합형에서는 회장에 다른 부위를 추가한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52.71%) 그 다음은 회장형(40.22%)이었고 단순 복합형은 가장 적었다(7.07%). 연도 별로는 회장형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전통을 지향하는 복고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배치와 부분배치의 혼합형은 전체배치구도에 회장형이 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3부위를 더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높았던 것은 깃・고름・끝동형(회장형)이었으며, 그 다음은 깃・고름・소매형(회장+1부위형), 깃・고름・끝동・결마기형(회장형), 깃・고름・소매・끝동형(회장+1부위형)의 순이었다.

북한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 : 북한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저고리의 장식 배치는 연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분배치(72.5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체배치(20.36%), 장식이 없는 경우(4.87%), 전체배치와 부분배치의 혼합(2.21%)의 순이었다.

장식이 배치된 부위는 전통적으로 장식되던 길, 깃, 고름, 끝동, 결마기 이외에 도련이나 길어깨, 진동선 등이 있었으며 후자의 경우 각각 길과 소매에 포함시켰다.

장식은 대부분 부분배치구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복합형(60.18%)이 많았다. 전체배치구도는 단독으로 혹은 부분배치와 함께 사용되었으며, 산점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충진형이었다.

부분배치구도는 단일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되었다. 단일형으로 장식된 부위는 소매부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고름 등이었다. 복합형에서는 3부위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 4, 5부위형의 순이었다. 하지만 5부위형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6부위형은 보이지 않았다. 부분배치 복합형을 다시 세분화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2부위형의 경우 회장형은 적었으며, 단순 복합형으로 고름과 소매, 길과 소매, 깃과 고름, 깃과 섶 등이 함께 장식되었고, 소매 또는 고름 장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부위형은 회장에 한 부위를 더한 형이 많았으며, 이때는 주로 소매, 섶, 길어깨, 결마기 등이 추가되었다. 회장형은 그에 비해 적었으며 단순 복합형으로는 깃・소매・길, 깃・섶・길이 있었다.

4부위형에서 회장형은 적었으며, 2부위 회장형에 소매와 길을 더한 형과 3부위 회장형에 소매 또는 길 또는 섶을 더한 경우가 많았다.

Table 3. 북한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

구분			1995a	1995b	1998	2001	2002a	2002b	합계
전체배치	충진형		4	3	4	2	3		16(7.1)
	산점형		1	11	7	5	2	1	27(11.9)
	충진형 + 산점형		1		2				3(1.3)
부분배치	단일형	길	1		1				2(0.9)
		깃			1		1		2(0.9)
		고름			1	1		5	7(3.1)
		소매	4	3	5	1	2		15(6.6)
		끝동		1	1				2(0.9)
	복합형	2부위	12	6	17	7		3	45(19.9)
		3부위	15	14	14	11	8	7	69(30.5)
		4부위	2	6	4	2		5	20(8.9)
		5부위		1	1	1			2(0.9)
전체배치+부분배치	전체배치+1부위		2						2(0.9)
	전체배치+2부위		1		2				3(1.3)
장식 없음			3		1		5	2	11(4.9)
	합계		46	45	61	30	21	23	226(100)

N(%)

Table 4. 북한 저고리 장식의 부분배치 복합형

구분		1995a	1995b	1998	2001	2002a	2002b	합계
2부위형	회장형(깃・고름, 깃・끝동, 고름・끝동)	1	3	1				5(3.7)
	단순 복합형	11	3	16	7	2	3	42(30.9)
3부위형	회장형(깃・고름・끝동)	2	5	2	1	5	2	17(11.8)
	회장+1부위형	10	8	11	11	3	5	48(33.8)
	단순 복합형	3	1	1				5(3.7)
4부위형	회장형(깃・고름・끝동・곁마기)	2	1	1				4(2.9)
	회장+1,2부위형		5	3	1		5	14(10.3)
	단순 복합형				1			1(0.7)
5부위형	회장+1,2,3부위형		1	1				2(1.5)
	단순 복합형				1			1(0.7)
합계		29	27	36	22	10	15	139(100)

N(%)

5부위형은 사용빈도가 낮았으며 4부위 회장형에 섶을 더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상 부분배치에서는 회장에 다른 부위를 추가한 유형(45.58%)이 가장 많았으며, 그 유형으로는 깃・고름・소매형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단순 복합형(36.04%)이었으며 두 가지 부위를 복합하여 장식한 것으로 고름・소매형이 가장 많았다. 회장형(18.38%) 중에는 3부위형(깃・고름・끝동)이 가장 많았다.

전체배치와 부분배치의 혼합형은 전체배치에 1~2부위 장식이 혼합된 경우였으며, 1부위인 경우 소매 혹은 끝동이었으며 2부위인 경우는 회장형이었다.

본 조사 결과 전체에서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것은 전체배치의 산점형이었으며, 그 다음은 깃・고름・소매형이었다.

3.2.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

남한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 : 남한 치마장식의 배치구도는 Table 5와 같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도 이후 장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수직 집중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2002년도 이후 수평 상부형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장식이 없는 경우(52.6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분배치(44.87%), 전체배치(2.28%) 혼합배치(0.23%)의 순이었다. 최근 치마에 장식을 하지 않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저고리 장식이 다양해지면서 장식의 집중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식이 배치된 구도를 살펴보면 부분배치에서는 수평형(26.1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수직형(11.62%), 수평형과 수직형의 복합형(7.06%)의 순이었다. 부분배치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평형의 경우 하부형이 가장 많았고 중부형은 보이지 않았다. 하부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부장식은 주로 치마의 1/2 혹은 1/3 아래 부위를 장식한 것이다. 단은 스란단 장식과 같이 치마단으로부터 일정간격 떨어져 있거나, 치마단선에 이어서 장식된 경우도 있었다. 상부형은 주로 허리 말기부위를 장식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수평형의 장식부위는 아랫부분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는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어줌으로서 길이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직형에서는 집중형이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치마허

Table 5. 남한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전체배치	충진형			2	1				2						5(1.1)
	산점형			1	2					1			1		5(1.1)
부분배치	수평형	상부형									1	1		1	3(0.7)
		하부형	하부	5	6	4	10	20	6	5	2		1	1	60(13.7)
			단	2	3	2	7	2		1	2	2			21(4.8)
			하부+단	1	3	2	5			1					12(2.8)
		복합형	중부+하부	5	1	2		2	6	1				2	19(4.3)
	수직형	집중형		4		5			4		4	5	3	5	30(6.8)
		분산형		5	2	2	7	1	2	1		1			21(4.8)
	복합형	수평형+수직형		5	18	4	1	0	1				1	1	31(7.1)
혼합배치(전체배치+부분배치)				1											1(0.2)
장식 없음				6	14	10	3	15	22	28	26	37	37	33	231(52.6)
합계				37	50	31	33	40	43	38	35	46	43	43	439(100)

N(%)

리띠를 늘어뜨려 장식한 경우가 많았으며, 간혹 치마중앙에 폭의 색을 달리하거나 다른 색의 천으로 장식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분산형의 경우 치마폭 이음선을 따라 파이핑 장식을 하거나 문양을 세로로 배열하거나 색상이 다른 천으로 장식하였다. 분산형이 주로 2000년도 이전에 즐겨 사용된데 비해 집중형은 그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다. 수평+수직 복합형은 주로 치마하부나 아랫단의 수평형과 수직 분산형이 혼합된 것이었으며, 수직형의 경향에 따라 주로 2000년도 이전에 사용되었다.

전체와 부분의 복합배치는 전체구도에 단장식이 복합된 것이 있었다.

북한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 : Table 6에 제시된 장식의 배치구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치마는 장식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중 부분배치(56.63%)가 가장 많았다.

전체배치(20.36%)는 혼합배치(3.98%)와 합하여 볼 때 산점형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충진형이었고, 회화형도 있었다. 회화형은 한복의 심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림기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부분배치의 경우 수평형(44.68%)이 대부분으로 하부형이 많았으며, 상부형은 보이지 않았다. 수직형은 집중형과 분산형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사선형은 전통치마의 장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잠시 소개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3.3. 남북한 장식의 배치구도 비교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 비교 : 남북한 저고리 장식의 배치구도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유사점으로는 장식의 배치구도에 있어서 부분배치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배치 중에서는 여러 부위를 함께 장식한 복합형이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회장형에 다른 부위를 추가하여 장식한 유형이 가장 많아 전통에 바탕을 두고 변화를 선택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장식 부위의 범위, 장식의 배치 구도상에는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장식 부위의 범위는 남한의 경우 깃, 동정, 고름, 섶, 길, 곁마기, 소매, 끝동의 저고리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련, 진동(선), 배래, 소매부리(선), 깃선, 섶선, 한쪽 길, 뒷고대 아래부위, 어깨마루, 소매마루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북한의 경우 길, 깃, 고름, 끝동, 곁마기의 저고리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 도련, 길어깨, 진동선 등이 있어 남한에 비해 장식부위가 다양하지 않았다.

배치구도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배치구도는 북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산점형과 충진형이 많은데 비해, 남한에서는 극소수이지만 산점형, 충진형, 회화형이 모두 사용되었다.

부분배치 구도에 있어서 단일형은 북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식부위로는 북한의 경우 소매가 남한의 경우 고름이 가장 많았다. 복합형은 남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식부위의 수도 남한의 경우 2~6부위로 북한의 2~5부위에 비해 다양하였다. 또한 복합형에서 북한의 경우 회장에 다른 부위를 추가한 형과 단순 복합형이 더 많은 반면, 남한의 경우 회장에 다른 부위를 추가하거나 회장형만으로 장식한 경우가 많아 전통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구도를 세분화하여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부분배치의 복합형 중 깃・고름・끝동(회장형)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의 경우 전체구도의 산점형이 가장 많아 남북한 모두 전통적인 배치구도가 지속적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된 장식부위는 남한의 경우 끝동, 소매 순이었으며 북한의 경우 고름, 소매 순이었다. 끝동, 소매, 고

Table 6. 북한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

구분				1995a	1995b	1998	2001	2002a	2002b	합계
전체배치	충진형			2	4	5	1	3	2	17(7.5)
	산점형			2	10	4	5	3	1	25(11.1)
	회화형					2				2(0.9)
	충진형+산점형			1		1				2(0.9)
부분배치	수평형	중부형		1						1(0.4)
		하부형	하부	9	8	11	8	3	7	46(20.4)
			단	3	2	6	1	2	6	20(8.9)
			하부+단	2	2	2	1	1	1	9(4.0)
		복합형	중부+하부	8	2	8	5	1	1	25(11.1)
	수직형	집중		2		3	1			6(2.7)
		분산		2			1		2	5(2.2)
	사선형	우측상향				1				1(0.4)
		좌측상향		1						1(0.4)
	복합형	수평형+수직형		1	3	3	5	1	1	14(6.2)
혼합배치(전체배치+부분배치)				3	3	2	1	0	0	9(3.9)
장식 없음				9	11	13	1	7	2	43(19.0)
합계				46	45	61	30	21	23	226(100)

N(%)

름은 모두 동적인 부위로 움직임에 따라 변화를 느끼게 하는 부위이다. 이러한 동적인 부위의 장식은 정적인 한복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 비교 : 남북한 치마 장식의 배치구도에 나타나는 유사점으로는 장식이 있는 경우 부분배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전체배치, 혼합배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장식의 유무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 장식이 없는 유형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배치구도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배치구도는 북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내용적으로도 산점형, 충진형, 회화형의 순으로 다양한 반면 남한에서는 충진형과 산점형이 다소 사용되었을 뿐이다.

부분배치구도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 수평형, 수직형, 복합형의 순으로 사용된 반면 북한의 경우 수평형, 복합형, 수직형, 사선형의 순으로 다양한 유형이 사용되었다. 다만 북한에서는 수평형에 장식이 집중된 반면 남한에서는 수평형 외에 수직형의 빈도도 높은 편으로 장식경향이 분산되었다. 수평형의 경우 북한에서는 중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장식된 반면 남한에서는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장식되어 장식의 범위가 더 넓었다. 특히 수평 상부형은 남한에서도 2002년도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사선형은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보인 특징으로 전통한복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유형이다. 이 사선형 배치구도를 시도한 디자이너 리유미는 재일교포로서 그가 일본 기모노 문양장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하지만 사선형은 저고리와 치마를 함께 볼 때 비대칭구도로서 전통성을 벗어나 현대적인 미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전통한복 장식의 배치구도가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유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한복을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남한과 북한의 저고리, 치마 각각에 사용된 장식의 배치구도를 분석하고 남북한 간에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한 저고리의 경우 장식은 저고리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부위, 당의나 활옷 등 다른 전통의상에 사용되었던 장식부위, 동정이나 한쪽 길 등 새로운 부위에 배치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분배치구도의 복합형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회장에 다른 부위를 추가한 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장형, 단순 복합형 순으로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가장 출현빈도가 높았던 것은 깃・고름・끝동형(회장형)이었으며, 깃・고름・소매형(회장+1부위형), 깃・고름・끝동・곁마기형(회장형), 깃・고름・소매・끝동형(회장+1부위형)의 순이었다.

2. 북한 저고리의 경우 전체배치구도는 부분배치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분배치에서는 회장에 다른 부위를 추가한 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순 복합형이었으며. 회장형은 가장 적었다. 가장 출현빈도가 높았던 것은 전체배치의 산점형이며, 그 다음은 깃・고름・소매형(회장+1부위형)이었다.

3. 남한 치마의 경우 장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분배치구도로 수평형, 수직형, 복합형의 빈도순을 보였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장식 없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수직 집중형이 증가하며, 2002년도 이후부터 수평 상부형 장식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4. 북한 치마의 경우 부분배치구도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배치구도도 적지 않게 사용되었다. 부분배치의 유형은 다양하였지만 수평형에 집중되어 전통적 경향을 보였다. 특별히 사선형은 전통치마의 장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저고리와 함께 비대칭 구도를 이루었다.

5. 남북한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저고리에는 부분배치의 복합형이, 치마에는 부분배치의 수평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장식의 유무, 장식부위의 범위, 배치구도의 유형에 있어서는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북한은 대부분 한복에 장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남한에는 치마에 장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저고리에 장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저고리, 치마에 사용된 장식 부위의 범위는 남한에서 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배치구도의 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저고리의 경우는 남한에서 더 다양하였으며, 치마의 경우는 북한에서 더 다양하였다. 저고리에서 많이 사용된 장식부위는 남한의 경우 끝동, 소매였으며 북한의 경우 고름, 소매로 모두 동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위였다

조사된 장식의 배치를 전통적인 배치와 비교해 볼 때 남한 저고리는 전통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저고리와 남북한의 치마에는 모두 전통적 배치, 전통에 변화를 가한 배치, 새롭게 시도된 배치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장식배치구도의 다양성은 한복장식이 복고적 경향과 현대적 경향을 모두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에 변화를 가한 배치, 새로운 유형의 배치는 그동안 한복의 현대화 작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6년도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강관식 (1997)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서울, p.6.
경공업성 피복연구소 (2002) “민족옷”. 외국문 인쇄공장, 평양.
경공업위원회 (1995) “조선민족옷”. 외국문종합출판사 인쇄공장, 평양.
권순정・송경자 (1999) 한국복지 문양과 색채에 관한 연구('97년도를 중심으로). *복식*, **43**, 31-39.
김옥녀・정희수・리광옥・김복순・신영옥・김영실・김수경・문진숙 (2002) “옷본보기”. 경공업성피복연구소, 평양.
리유미 (1995) “조선민족의상”.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

리유미 (1999) “아름다운 조선옷”. 공업종합출판사, 평양.
리유미・김정란・홍성희 (2001) “옷도안과 설계”. 2.16예술교육출판사, 평양.
아름다운 우리옷 (1995~1999) 서울.
이자연 (1999) “일본복식사”. 경춘사, 서울, pp.136-151.
옥명선・박옥련・이주영 (2005)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에 표현된 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5**(2), 58-69.
온고지신 (1999~2000) 도서출판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서울.
이주영・장현주・도주연・장정아 (2004) 보문(寶紋)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 *복식*, **54**(2), 11-23.
이진민・김민자 (2006) 동양 미학적 관점에 의한 한, 일 여성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 *복식*, **56**(5), 132-149.
장수경 (1994)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2), 283-295.
장현주・하종경 (2005) 조선시대 직물에 나타난 동물문양의 유형과 특성. *복식*, **55**(5), 65-77.
정혜경・박영희 (2004) 한복에 사용된 장식문양을 통하여 본 전통-현대화 작업에 대한 분석. *복식*, **54**(1), 11-21.
정혜경 (2006) 남북한 전통의상에 사용된 장식문양에 관한 비교연구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6), 627-633.
최경순・김수경 (1999) 1990년대 후반 한국 전통의상에 사용한 문양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7**(5), 140-151.
하덕순 (1993) 한복에 장식된 문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복 (2001~2005) (주)온고지신, 서울.

(2007년 5월 3일 접수)